

데스크시각



홍행기 편집부국장·정치부장

5·18에 먹는 주먹밥

히 목숨을 부지해 고국에 돌아온 월왕 구천도 무려 20년간이나 쓰디쓴 쓸개를 활으며 복수를 다짐하다 마침내 오왕 부차에게 승리한다. 밤잠 설치게 만드는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온몸의 감각을 진저리치게 만드는 쓸개과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 준 셈이다.

쓰디쓴 쓸개 짙은 이유는

유월절(逾越節, Passover)을 민족 최대 명절로 꼽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고통받던 유대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탈출하기 직전, 유대인들의 신(神)은 한밤중에 모든 가정의 첫 아기와 모든 가족의 첫 새끼를 죽이며 이집트 땅을 휩쓴다. 그러나 신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의 가정은 '뛰어넘어' (유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후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탈출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빵이 제대로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날 여러 가지 야채 대신 쓴 약초를 먹는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야 했던 쓰디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쓴 약

초를 한 번은 짠 물에, 한 번은 단 물에 담근다. 눈물이 즐거움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우리 광주에서도 5월 그날이 오면, 시민들은 아무런 맛도 없는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다. 군사 정권의 엄혹한 계엄령속, 총검에 찢리고 총탄에 맞으면서도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주먹밥을 나눠 먹었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월왕 구천과 오왕 부차, 유대인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땀나뭇에 누워 잠을 자고, 쓸개를 활으며, 쓴 약초와 주먹밥을 먹었던 것은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이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2년 전 광주에서 열린 5·18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들을 끌어안아 주면서 '광주의 한(恨)'이 비로소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날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체성 잃으면 미래도 없다

시간인 집단 학살, 암매장지의 소재, 집단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의 경우, 북

한군 침투 조작, 행방불명자의 규모 등 각종 의혹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규명해야 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특히, 5·18 광연의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굳건히 자리잡게 했으며, 지난 2016년 겨울 촛불 혁명의 뿌리가 됐다라는 것이 역사의 평가다. 하지만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5·18은 여전히 반쪽일 수밖에 없다. 정체성을 찾아내고 지켜 가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를 기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5월 18일, 광주 시민은 또다시 주먹밥을 지어 먹을 것이다. 광주와 우리 민족의 과거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 뿌리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전격화, 세계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은펜칼럼

부활 신앙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림을 드시는 것이 아버지의 즐거운 일과였다. 왕복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주치는 이마미 미소가득, 손을 흔들며 반가워하셨다. 지난 여름에는 70대 초반인 나도 한달 가까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다녔다. 어느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차 속에서 먼저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어느새 지역의 유명 인사였다. 2월 마지막 금요일, 큰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열이 나고 다시 폐렴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 병원으로 모셔서 고생시키기보다 집에서 돌보아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는 듯 싶었으나 이미 결정한 듯했다. 동생은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지내다 퇴직하고 와서 몇 달째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다. 다른 동생 역시 의사인데 같은 의견이었다. 병원에서 갖가지 혈관 주사와 쿿줄을 달고 고생하시는 것보다 집에서 의사 아들들이 돌보아 드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지나니 아버지는 다시 거실 소파

에 앉아서 TV도 보시고 예전처럼 우리 손등에 수없이 입맞춤을 하는 것이 회복 중이신 것 같았다. 밖에 나가고 싶어 하셔서 그 마트에 갔다. 아이스크림을 드신 아버지를 가운데 두고 삼남매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었다. 아버지도 어느 때처럼 행복하게 웃고 계셨다. 미국에서 여동생이 열을 만에 되돌아왔다. 내가 오후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거실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요즈음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다. 동생에게 "네가와 주어서 고맙다."고 하셨다. 그 밤에 3대가 다시 모였다. 지난번에는 살아서 앉아 계신 아버지 둘째에, 이번에는 숨이 끊어져 누우신 아버지 주위에 작은 흐느낌만 있을 뿐, 아무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부모님이 생전에 웃음 가득, 서로 이마를 맞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손녀들이 확대하여 보였다. 어머니가 주사 하시던 말씀, "하나님, 그저감사합니다."도 아래쪽에 보였다.

새봄이 시작되는 3월 둘째 날 하관식, 비록 차가운 땅속이지만 아버지는 7년 만에 어머니 곁에 누우셨다. 두 분은 생전에 소문난 인교부부셨다. 우리 육 남매는 사흘간 거의 울지 않았다. 아버지가 천수를 누려서 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솔라리 건배사에 등장하는 '구구팔팔 이삼사',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 일만 앓고 죽으면 좋겠다.'보다 더 편안하게 가셔서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육이오를 겪은 후, 예수님을 믿고 줄곧 부활 신앙으로 사셨다. 우리 역시 부모님의 신앙을 가장 큰 유산으로 받았다. 사람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난다. 대부분 잊고 살거나 생각하기 싫어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때가 되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삶, 부활을 기대하며 편안히 잠드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한 달 여 만에 부활절을 맞았다.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 주었다.

기고

우리 안의 가장 슬픈 사월의 그림 -강요배의 '젓먹이'



김용근 동강대학교 교수

을 배척하고 폭력화시킨 두 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우리 안의 가장 슬픈 사월의 그림을 보면서 역사에 응답해야 할 우리가 되고자 한다. '동백꽃 지다'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을 설명하거나 글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책이 있다. 동백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낙화로써 한 잎 두 잎 떨어져 바람에 휘날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꽃봉오리가 통째로 특하며 낙하하여 땅으로 떨어진다. 이 책은 자국민을 3만 명 이상 학살한 제주 4·3을 다룬 것으로 당사자 34명의 증언을 채록한 이야기와 이를 기초로 한 그림은 강요배 화백이 그렸다. '동백꽃 지다'는 강 화백이 1992년에 발표한 전시회의 제목이며, 이 전시는 '제주 4·3 항쟁'을 다룬 그림 50점으로 당시 제주 의 비극적 고통을 보여줬다. 그는 당시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제주민의 일상사와 당시의 처지를 생생하게 그렸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젓먹이'는 당시의 처참함과 죽음을 단칼의 단면처럼 함축된 비애와 눈물로 보여준다. 그림 '젓먹이'는 북촌마을을 김석보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담아 표현

했다. "군인들이 사람들 머리 위로 총을 난사했는데... 압혀 있던 아기가 그 죽은 어머니 위에 얹어져 젓을 빨던군요. 그날 그곳에 있었던 북촌리 사람들은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겁니다." 강 화백은 머리예 총을 맞고 죽은 어머니와 그 머리 위에 얹드려 젓을 빨고 있는 아이, 그리고 죽은 여인을 앞에 두고 울분하는 사람의 모습을 4·3의 상징적 표상으로 그림으로 옮겼다. 총에 쓰러진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은 3만명의 제주의 죽음을 나타내고, 이유 없는 폭력의 비참함을 모른 채 어머니의 젓을 찾는 어린애는 반 이데올로기의 순진함과 미래의 생명력으로 희망한 희망을 보여준다. 그리고 울분과 분노와 고통의 외침이 형태와 색의 이미지를 압도해 버린 울분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는 모든 사람의 역사의 골짜기에서 아픔의 어둠과 눈물의 눈물을 동시에 젓게 하고, 눈물을 닦아낼 손조차 바닥으로 처져 온몸이 눈물로 젖는다. 4·3을 통해 지배자는 두 진영을 가르는 전리품을 얻어 헛된 세계사적 진영은

리에 동참하게 된다. 이제는 이런 이분법 논리에 벗어나 역사적 소추를 통해 다시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생하는 총과 빨판을 가진 거머리들의 논리에 끝없는 질문과 응답을 요구한다. 이 그림 속 우리의 과거는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은밀한 지침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통곡의 바람 한 줄기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한 역사의 촉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침묵의 역사 동굴 속에 희미한 메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과거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된 은밀한 지침서의 열쇠가 열리게 된다. 따라서 역사는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의 모든 세대와 연결되고, 메시아적 힘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과거는 연대표에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힘을 요구하고 응답하게 하는 천둥소리이다. 그래서 우리 안의 남을 우리 밖의 남으로 명명하여 배제하고 배척하거나, 우리 안에 우리로 동일화 시켰던 폭력적 과거 역사는 우리에게 메시아적 지침서를 펼쳐 행동하게 한다.

社說

한국당은 '개혁 법안 추진'에 어기대지 말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한데 이어 각당의 추인을 받았다. 이들은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해 주먹밥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어제 일제히 의원 총회를 열고 전날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진했다. 특히 당내 이견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은 바른미래당도 이날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추진받았다. 합의안 중 선거제 개혁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연동률 50%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관련 법죄에는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이들 사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다. 5·18에 대해 토론회·집회 등의 발언으로 부인·비방·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 역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20대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라며 국회 전면 보이콧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적법 절차이고, 선거제도 개혁 합의는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거짓장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과 진정성 있게 협상과 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산불 한 번 나면 숲 조성에 20년 이상 걸린다

지난 22일 점심 무렵 무등산에서 불과 350m 떨어진 북구 청풍동 대나무 밭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무등산과 인근 마을까지 번질 우려가 있었으나 광주소방본부 등이 헬기 1대와 소방차 15대 등을 긴급 투입함으로써 대형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화재 발생 당시 무등산 일대에는 초속 3.4m의 약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어느 때처럼 강했다면 이날 초강일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에 버금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강원도 산불은 초속 20-30m 안팎의 강풍 때문에 초대형 산불로 확산돼 많은 피해를 냈다. 무등산은 국립 공원이다. 후손에 길이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입산객뿐만 아니라 무등산과 맞닿아 있는 자연 마을 거주 주민들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소방 당국은 옛 그제 청풍동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인근 밭의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불씨가 옮겨

불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등산 주변 자연 마을에서는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한다. 국립 공원 안에 있는 마을의 경우 단속이 가능하지만 밖에 있는 마을은 계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창 무등산 보호단체인협의회 본부장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등산은 도심 공원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국립 공원이 협업체를 만들어 화재 예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불은 대부분 주민이나 입산자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다. 산불은 또한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산불이 나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다시 숲을 조성하기까지 20-3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중 음악 전문가들은 아이돌 보이 그룹의 시조를 1996년 H.O.T로 본다. H.O.T를 필두로 젝스키스, 신화, god를 1세대로 보고 2003년 데뷔한 동방신기를 시작으로 박명,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을 2세대로 분류한다. 3세대로는 2013년 대세로 떠오른 EXO와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있다. BTS는 이전 보이 그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의 그룹들은 대형 연예 기획사의 잘 짜인 프로그램 속에 다분히 인위적으로 양성되다 보

로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 됐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명한 데도 BTS 멤버 7명은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멤버 가운데 제이홉은 광주 출신인데 '춤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강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28일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기념 콘서트에 출연하는 BTS를 보기 위해 외국에서 만 1만 명의 팬들이 광주에 오는데 상당수가 제이홉이 다닌 댄스 학원을 찾는다고 한다. 제이홉은 지난 2월 자신의 잘 짜인 프로그램 속에 다분히 인위적으로 양성되다 보니 춤과 노래가 일률적이고 히트작도 단발성에 그쳤다. 반면 BTS는 멤버 모두가 작사·작곡이 가능한 아티스트로 전세게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랑과 꿈을 노래하고, 각자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히트곡이 꾸준히 세계 최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혹자는 이런 BTS의 노래를 서사시에 비유하기도 한다. 미국 타임지는 BTS를 "자존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빛나는 노래 속에 숨겨진 철학의 복합성, 정교한 안무 하나하나에 깃든 시너지와 형제애

승리와 제이홉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제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016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